

2020 년 12 월 선교소식—쿠바한인후예(손)들과 베네수엘라 소식

이 열병 어찌 할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 6-7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수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에게는 쉼의 시간을 주시어 베네수엘라와 쿠바선교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기록 할 시간을 주십니다.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쿠바가 또 열린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다. 11 월 부터 아바나공항이 열린다하니. 동부 홀긴쪽도 열린다지만 외국항공도착 빈도가 너무 적구나. 아바나를 통해서 쿠바들어가기로 결심하다. 아바나 토니김 회장 룩사나 자매 마나띠 에스민다 목녀 마르까네 카띠 김 목녀 김

(킹) 펠리스 그리고 까마구이 산드라 김 목녀와 벨다 김 지역회장들과 통화가되는구나 할렐루야! 지성이면감천.특별히 동부쪽에서는 생필수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토니 김 한인회장도 빨리 방문하였으면한다. 그래도 입국항 아바나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다리다. 12 월 6 일 입국하도록 날자를 정하였다. 표를 구입한 후 요구하는 생 필수품을 점검하며 앞으로 윗뜨앱 WhatsApp 으로 통화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여러개 준비하였다. 2 주면 동부까지 방문 가능하며 청소년훈련과정도 충분히 의논하고 지역과 장소도 확정하리라. 5 일 출발 3-4 일 앞두고 토니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쿠바당국이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하며 최소 6 일을 별거한다고. 그러면 동부까지 갈 수 없다 까마구이까지 가도록 일정을 변경하고 동부지역대표들을 그곳까지 오도록 조치하였다. 출발 2 일 전 또 연락오다. 6 일 후 음성판정을 받아도 가정교회나 한인후손들 만날 수 없다고. 모든 방문객은 면전에서 통화 후 입실은 할 수 없다니 어쩌나. 토니회장 말씀. 몇 달 기다리며 사정이 달라지도록 미루자고하네.

쿠바한인후예들은 1921 년 3 월 25 일 280 여명이 에니깁 농장 농부들로서 벅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쿠바 사탕수수 농장경기 호전으로 쿠바에 이민온 한인후예들 1 세와 2 세 자손들이었다. 동부항구 마나띠 항구에 입항하여 한인촌을 형성하며 살았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꾼으로 시작하였으나. 국제사탕수수 원당가격 하락으로 당시 에네깁 농장이 있던 마탄사스로 이주하여 집단 한인촌을 엘볼로에 형성하여 살다가 각처로 이주하여 8 개 지역에 생활터전을 이루고 살고있다. 엘볼로 한인 정착촌을 회복 할 수 있을까? 특별히 허물어진 임은조 가족집 한인최초의 교회만이라도.

베네수엘라/꾸마나에서 온 소식

지난 12 월 6 일 국회의원 선거에 주요 야당후보가 불참하여 투표율 16%라고 합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 국회장악 우리나라보다 더 하네요. ㅎㅎㅎㅎ



꾸마나 중앙침례교회는 3 번째 개척교회로 1991 년 3 월 21 일 목요일에 시작하였다. 왜? 당시 문따니따 가나안침례교회를 섬기는 중이라 수요일예배 중복피해. 그레고리오 렌헬/콘스탄사 바레도 집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하다. 2 년 후 교회건축 시작하다. 교인 16 가정이 한 기둥씩(2x2M2) 기초공사를 시작하다. 1995 년에 680M2 대지위에 2 층예배실 1 층 친교실을 완성하다. 에어컨도 설치한 현대적 교회건물이다. 1996 년에 남은 공간을 3 층으로 증축하도록 축복하시네. 300 여명의 성도들과 3 지역 선교교회 개척하다. 까이구에레 선한목자교회, 야다나 예수인교회, 드레스피꼬 새생명교회. 23 년 근속 후 2000 년 해양연구소 해양과학 대학원장으로 UDO 대학과 연구교수 은퇴하다. 중앙교회를 집사중심교회로 개편하고 은퇴하다.

카리브복음신학원소식

카리브복음신학원 설립을 위하여 2001-4 년 골든게이트 신학원에서 MDiv 신학공부하기로 결심. 베네수엘라 침례총회에서 획득한 것 부족하니. 2005 년 개학을 위하여 2004 년 DMin 괴장을 시작 2007 년 졸업하다. 카리브복음신학원은 DMin 프로젝트로 2005 년 9 월 17 일 개원하였다. 경제적 소득없는 신학교 왜 개설하나? 베네수엘라에는 전통적인 두 신학교 (로스떼게 침례신학대/리몬 연합신학대)가 있지만 모두 주간 신학대로 기숙사 생활이다. 95% 목사들이 직장을 갖고 사역한다. 또 목사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신학공부를 하지못한다. 지방에 신학교가 없고 또 야간이나 주말에 공부 할 수도 없다. 후배사역자를 기르지않는 선진국 제국주의 근성도 한 몫 하다. 카리브 복음신학원은 지금까지 특수과정 (10 주), 신학사 과정 (4 년), 목회학석사과정 (3 년)에 총 400 여명이

졸업하였다. 특히 신학사와 목회학석사 과정은 매릴랜드 신학대 신학대학원 (Marylan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학장 안준식 박사)의 학사협정 배려로 매릴랜드 신학교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으로 카리브복음 신학원의 존재가치를 Upgrade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 수업이 중단되어 신학교사역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Zoom 줌 영상강의나 Goole Meeting 구글 영상강의를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이번에 7 명에게 셀폰을 선물 하였다. 카리브복음신학원에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를 설치 하였다. 이번 2020 년 가을학기에는 71 명이 등록하였다 (특수과정 13 명 학사과정 28 명 석사과정 30 명). 대면강의 PRESENT 온라인강의 ONLINE 통신강의 DISTANCE CLASSES 병행한다. 특수과정과 학사과정은 모나가주 산호아킨 (7 명 등록) 안소아테기주 엘띠그레레 (10 명 등록) 슈그리주 까리아코 (10 명 등록)에서 병행한다. 쿠마나 캠프에서는 모든과정이 오픈한다. 할렐루야!



카리브복음신학원 쿠마나 캠프서 모습: 1KM2 대지와 교실 16 개 16 인승 학생통학용 버스운영. 요즈음 개스구입이 힘들다고하네요. \$2/Liter. 세계제 1 산유국이지만 정유공장이 가동하지 못하니.

가족이야기/선교시작이야기



딸 원아와 아들 석구가족들 (손주 5 명) 사위 이테리후손 미국인 며느리 대만후손 캐나다출신이다. 우리가족은 국제가족화 되었다.한국사위 며느리라야 한다고 우기던 마누라도 손수들 기여워하니 하나님 은혜다.

코로나열병으로 세계여러나라가 통제하니 우리들에게는 홍재다. 추수감사절 휴가로 온 가족이 모이고 가족사진도 났었다. 때를 따라 기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선교한답시고 명절에 모이기 힘드니 코로나 19 열병 유행중에 모이도록 기회 주시시는구나. 할렐루야!



단풍이 무르익은 초 겨울 가주 로즈빌에서 전 가족이 모이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내가 처음 미국에 올때 1972 년 딸 원아는 3 살 아들 석구는 2 달이었다. Texas A&M 수산과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1977 년 2 년계약으로 베네수엘라 국립해양연구소 연구교수로 취임하여 아이들을 까리빠(Monaga, Caripe) 미션스쿨에 입학하니 초등학교 2 학년 5 학년이다. 정보가 없어 2 년 후였다. 이곳은 초등학교만 운영하였다. 그 후 Team Mission 팀미션이 Rubio 루비오 Christian Academy(CA)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니 기숙사 생활이다. 선교에는 도움되나 가족으로 한집에서 생활 할 수없고 1 년 중 2 달 반 정도 방학때만 함께 거주하다. 6 월 중순에서 8 월 말까지. 그래서 두자식들은 바나나다. 밖은 황색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안은 희다 (예절 생각 사상은 미국인). Christiansen Academy 미션스쿨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도시 Rubio 루비오에 위치하며 우리가 거주하는 사역지 쿠바나까지는 자동차로 20-24 시간 정도 소요된다. CA 학생 총 수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00 명 정도다. 고등학교 졸업반은 15 명정도다. 학교생활은 수도사적 생활이다. 오전 7 시 기상 아침기도 묵상 아침식사 설거지 도움 후 오전 수업 점심 오후과정 후 오후 3:30 자유시간 4:30 특별활동시간 5:30 저녁식사 6:30 까지 자유시간. 7-8 시 복습/예습 8-9 시 예배와 상담 후 취침. 전 학년에 성경공부 필수로 초 중 고등학교생활 중 12 년간이다. 1987 년 졸업생들은 매일 장래의 꿈과 상급학교입학을 위해 기도하다. 나는 딸 원아를 오스틴 Texas 주립대학으로 가도록 권유하였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또 화학콘테스트에 입상하여 학비가 면제된 상태다. 딸 원아는 웨슬리여대 MIT 에 원서는 내었지만 외국인으로 장학금을 받기가 힘들다고한다. 원아 왈 “아빠는 선교사며 목사라고 하지만 성경을 믿지않는가보다, 왜? 졸업반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 중 이란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대꾸할 말 못찾고 가슴이 멍하다. 아들 석구는 성적이 중간이다 B~정도. 딸은 All A 였는데. 아들은 베네수엘라 대학에 가도록 종용하다. 어찌된 일인지 다음 학기부터 All A 로 급변하다. 1988 년 10 학년초 SAT 점수가 높게 나왔다 1390?점. 뉴욕주 포츠담(Potsdam)에 위치한 Clarkson University Bridging Program (고 12 학년과 대학 1 학년 함께) 입학허가 획득하다. 풀 장학생으로. 만 16 세였다. 1989 입학. 그 후 대학 2 학년으로 MIT 로 전학하였다. 아빠가 대학연구 교수로 개척교회 목사로 바쁘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도다. 둘다 목에 인적사항기록한 카드로 출국. 각 대학 사감이 인수하여 교육 시켜주었다. 입학시에는 물론 졸업할때 까지 학교를 방문한적이없다.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도록 경제적 영적 도움으로 탈 없이 졸업하였다. 졸업 후 조흔직장도 주시었다. 모든것 하나님 은혜. 아멘.

Petición de Oraciones 기도제목

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정치위기 (독재정치) 생명위기 (코로나 19) 생활위기 (억만% 인플레이션) 극복하도록. 12 월 6 일 국회의원 야당 후보들이 불참으로 16% 참여하다. 주여 난국이 해결되도록 강권하소서!

2. 카리브복음신학원 케이블 TV 개설로 복음전파에 도움되고 학생들 온라인강의 가능하여 베네수엘라 목회자양성 주축되도록. 모든시설이 현지인들에게 인계되고 신학교가 알파와 오메가대학으로 분교부에 등록되도록
3. 쿠바한인후손들 복음전도로 생명길 선택하고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생활 계속하여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도록 쿠바구제선교/복음전도에 미주한인교회 동참하도록.
4. 쿠바입국 선교탄압 완화되고 8 개지역 1230 여명의 한인후손들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들 제자훈련 청소년훈련수련회(은혜와 평강교회) 가능하도록.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Seminario Evangelico del Caribe 카리브복음신학원.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Rev. Kyung Suk Chung 정경석 email: kyungsukchung@yahoo.com +53 0414-773-1443, 0412-305-0190
- Cuba 쿠바 +53 55.79.32.63. kchung@nauta.cu
- USA 미국 +1 415-712-6023 kyungsukchung@gmail.com 555 10th St. Apt. #201, Oakland, CA 94607 카톡 KSchung0223 whatsapp 통화가능
- 웹: 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 구웹으로 신학교 정보가능. 업그레이드

후기: 다 내려놓지 못한자도 쓰시는 하나님

금년 3 월 코로나열병이 전세계로 전파되면서 근 10 개월을 감금생활을 하다보니 과거사 정리토록 토론토 은혜와 평강교회 장동철 목사가 권유하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자도 쓰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며 가는 세월이 아쉽고도 아깝구나!

1945 년 한국이 해방되어 일본에서 밀항선으로 귀국하여 국민학교에서 귀환동포/우환동포로 취급 받으며 한국말 익히기에 노력하던 기억, 가정/경제사정으로 중학교진학 못하고 미국교인들의 구제 현금으로 꼴꼴이 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구두딴기로 조롱받던 일, 야간 중학교에서 졸면서 졸업하고 하야리아 부산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니 구두딴기 기술이 큰 도움되는구나. 야간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산대 거쳐 해간 33 기 해병대 장교가되니 과거 하우스보이 경험이 또 도움되어 군사영어학교 교관 해병사단.미 1 군단 통역장교 경험으로 풀브라이트 연구교수 시험에 통과하여 1971-2 년 Texas A&M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 1977 년 해양수산과학 박사학위받고 미국남침례회 대학구제사역 영향으로 침례교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다. 베네수엘라 국립해양연구소 연구교수로 2 년 계약하여 석유자본에 팔려갔지만 자천 타천 (성령님 강권)으로 자비량선교한다고 어설령그리다 보니 40 여년이 흐르면서 꾸마나 지역에 8 개 교회가 개척되고 카리브복음 신학원이 세워졌구나. 하나님은혜로 400 여명이 졸업하였구나!

1987년 쿠바에 라틴수산해양 컨퍼런스로 참여하였으나 한인후손들 존재 알지못하다가 꾸마나에서 교제/함께한 최규본 형제/사장의 쿠바수산회사 건립 조언한다며 1997년 1998년 사이에 4번 방문 후 우여곡절끝에 한인회장 임은조와 회동하며 한인후예들 찾아해매 쿠바선교가 시작되다. 최사장 네네까사의 도움으로 쿠바동부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씨아틀 연합장로교회(박영희 목사, 강세홍 장로) 도움으로 한인후손들 지원하며 소원들어주어 쿠바의 한인들 이민사 (Coreanos en Cuba) 발간하고 (역사학자 Raul Ruiz 부인 Martha Lim Kim 공저) 이일성 내외 문화선교사 파송하여 쿠바선교가 궤도에 올랐다. 매년 4-5회 쿠바방문으로 주요 인물에 오르고 쿠바정부 정보대에 붙잡혀 심문받고 북한대사관 연락받으니 쿠바방문이 무서워 잠시 쉬었다.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 선교사 내외도 건강으로 퇴진하니 쿠바한인후예들 선교가 제자리 걸음마였다.

최근 10여년 동부한인후예들을 구제와 전도로 도우며 8개지역 동포들과 우정을 더욱 공고히하였다. 폐쇄된 사회와 빈곤한 나라의 복음전도 선교사역은 구제사역이 중요하다. 내 삶의 경험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최근 36명에게 침례를 배풀고 미주한인 침례교회총회/한국침례회 캐나다 한인교회가 방문토록 주선하였다. 쿠바와 캐나다의 좋은 상호관계로 토론토 한인교회들의 참여로 청소년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중 코로나열병으로 멈추어지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곧 열여 쿠바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리라. 아멘!